

가창 교재곡의 한국화 방안

이 홍 수*

차 례

- I. 머리말
- II. 교재곡 한국화에 대한 과거의 관점
- III. 주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시각 및 방안
 - 1. 전제되는 교육적 관점
 - 2. 교재 악곡 다양화 경향과 대처 방안
 - 3. 가창 교재곡의 한국화
- IV. 맺는 말

I. 머리말

음악과의 교수·학습 활동은 주로 교재 악곡을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음악 미적 지각력과 반응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든, 음악의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것, 또는 음악 기초 기능을 기르는 것, 창의적 표현력을 기르는 것들 중의 어느 것이든 음악과 교수·학습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주어진 교재 악곡에 담긴 음향을 다룸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과 수업에서 교재 악곡의 비중은 어느 것보다 더 크며 심지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악곡의 예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각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전반적인 교재 악곡 선정의 타당도가 음악과 교육 전체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재 악곡의 이러한 음악 교육적 가치와 타당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악곡들의 교재로서의 가치나 전형적인 교재 악곡의 요건에 대한 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의는 지금까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음악교육의 양상과 질적 수준을 항상 점검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끊임 없이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재 악곡들의 실상을 살피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일은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근대 공교육의 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노래 지도가 시작된 이래, 우리의 일반 학교 음악교육은 직접, 간접적으로 유럽과 일본, 미국의 음악교육의 영향을 받아 왔다. 예컨대, 철학적 관점은 초기에 유럽의 철학자들에게서 배웠고, 후에 미국 음악교육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음악 이론과 교재 악곡은 초기에(일본 교과서의 영향으로) 서유럽 음악에서 가져 왔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는 초기부터 오랫동안 일본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고, 후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음악 지도의 방법은 초기에 서유럽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후에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의 철학자와 음악학자, 음악교육학자들로부터 교육의 이념과 음악교육 이론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다양한 음악 작품과 창작 기법을 들여오고, 효율적인 교육 내용 체제와 지도 방법을 도입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거나 심지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의 요구는 종래 방식의 연장선 위에서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매우 포괄적이고도 격렬한 것이다. 우리가 '음악교육의 한국화'를 실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본 연구자가 '가치 지향·민족 지향·미래 지향의 음악교육'을 주장하는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교재 악곡의 한국화는 '음악교육의 한국화'의 실현과 '가치·민족·미래 지향의 음악교육'의 추구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음악은 '인간·한국인·우리·나·삶·언어·소리·다름·의미·상징·구조·조화·아름다움·예술·가치·사회·미래' 등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요, 가치 지향의 음악을 할만한 존재인 동시에 그것을 해야 온전해지는 존재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소리를 다룰 줄 알고, 나아가 아름답게 다룰 수 있는 존재이며, 소리를 다루되 자신이 사용하는 민족 언어의 특질을 바탕으로 하며 다루고, 특히 자신의 느낌과 의도를 담아 다룰 때에 행복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든 것(상징 체제로 구조화한 것)이든 가장 좋은 소리 상태를 향유하고 사회 속에 보존하며, 동시에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살도록 연습되어 왔고, 그것을 더 잘 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히 여기면서 음악을 교육한다. 그래야 우리가 '음악교육의 한국화'와 '미래·민족·미래 지향의 음악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재 악곡의 한국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실상과 그러한 실상을 낳은 과거의

실제적 배경 및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에 관해 밝힌 주요 인사들의 견해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교재곡의 한국화에 대한 나운영·정세문 전 음악과 편수관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실현을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와 반영해야 할 실제적인 측면들을 살피고, 교재 악곡 개발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재곡 한국화에 대한 과거의 관점

나운영·정세문 두 교육부 전 음악과 편수관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음악과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분들이다. 나운영 전 편수관(연세대학교 교수, 음악대학장 역임)은 제 1차 음악과 교육과정('55. 8. 1 제정 공포)·교과서를 주관하였으며, 정세문 전 편수관(교육부 편수국장, 건국대학교 교수 역임)은 제 2차('63. 2. 15)와 3차('73. 2. 14) 교육과정·교과서를 주관하고, 제 4차('81. 12. 21) 교육과정과 5차('87. 6. 30) 교육과정·교과서를 주도하였다.

이 두 분의 음악과 교육과정 제정과 교과서 편찬은 곧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외형 체제와 음악과 지도 내용의 틀을 확립하는 일이었고,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학교 음악교육은 그 체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만들어진 음악교육의 체제와 선정된 내용들이 오늘날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우리 앞날의 교재 악곡에 관련된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각각 편수관직을 떠난 여러 해 후에 이 문제에 관해 밝힌 견해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3년 8월,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대회의 발제 강연에서 두 분은 교재 악곡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나운영 전 편수관은 “교재곡 개발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오늘날의 우리 음악교육을 “서양음악 일변도의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어학 교육에서 한글→한문→영어→제2외국어 순으로 가르치고, 역사교육에서 국사→동양사→서양사 순으로 가르치듯이, 음악교육에서도 국악→동양음악→서양음악 순으로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지론이라고 밝히면서 “내 나라의 음악을 모르면서 무시 천시하고, 서양음악만을 가르치는 것은 국적 없는 교육”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국적 있는 음악교육’을 위해 교재곡 개발 방향 1)을 다음과 같

1) 나운영, “교재곡 개발의 새로운 방향”, 교과서 교재곡 개발 방향 및 지도 내용 선정 방안 탐색.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음악교육학회, 1993), p. 8.

이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첫째, 전래 동요의 발굴·편곡·보급
 둘째, 대표적인 민요의 편곡·보급
 셋째, 신 민요의 발굴·편곡·보급
 넷째, 창작 동요의 보급
 다섯째, 외국 곡의 보급(동양곡→서양곡)

그리고, 창작 동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요 작곡 방향²⁾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7·5조 가사보다는 4·4조, 3·3조 가사가 더 바람직하다.
 둘째, 2/4박자, 4/4 박자보다는 3/4박자, 6/8박자, 9/8박자가 더 바람직하다.
 셋째, 서양 찬송가조의 가락보다는 민요조의 가락이 더 바람직하다.
 넷째, 3도 화성보다는 현대 화성과의 절충 또는 한국 화성이 더 바람직하다.

나운영 전 편수관은 그밖에도 가창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장단(세마치, 타령, 굿거리, 도드리 등) 지도의 중요성과 민속조(3음음계, 5음음계-궁조·평조·계면조, 범 3음음계, 범 5음음계 등)에 의한 가락 지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민속조 가락에 어울리는 화성 지도의 사례(Drone-bass, 부3화음, 부가화음, 한국화성 등)를 보여 주었다.

정세문 전 편수관은 “전통음악 또는 전통 음악적 교재 내용 선정의 발자취”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제 1차부터 6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1차부터 5차까지의 교과서에 포함되었던 전통음악 또는 전통 음악적 내용과 대표적인 교재곡을 간추려 소개하고, 전통음악의 존중 및 계승, 발전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선택해야 할 관점과 방법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세문 전 편수관은 제 1차부터 6차까지의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편과 중학교 편에 각각 제시되었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초기에는 전통음악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나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내용을 막연한 형태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교육과정 개편을 거듭하면서 전통음악 관련 내용이 점차 추가되고 구체화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변화를 보기 위해 소개되었던 제 1차와

2) 위의 글, p. 8.

6차 교육과정의 주요 부분³⁾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 1차]

(초) - 민속조의 노래를 가르칠 수 있다.(가창)

-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커, 명적(피리 일종) 등으로 가락을 연주하여 본다.(기악)
- 민요, 국악, 정악, 군악, 창극을 들려준다.(감상)

(중) - 우리나라의 민요와 악기 및 음악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가창, 기악, 감상)

- 민속조로 된 곡과 우리나라의 작품을 5곡 이상 쓴다.(가창, 기악)
- 우리나라의 전전한 민요와 외국 민요를 감상한다.(감상)
- 우리나라의 훌륭한 음악을 많이 들려준다.(감상)
- 우리나라의 민족악기, 국악기, 아악기의 음색과 그 음악을 감상한다.(감상)

[제 6차]

(초) - 전래동요 부르기 및 민요 시김새 넣어 부르기(가창)

- C, F, G, a(같은 조표의 우리 음계 포함)의 가락을 악보를 보고 부르기(가창, 기악)
- 세마치 장단, 굿거리 장단 치기(기악)
- 9박자, 6~9박자의 리듬 구성 이해하기(가창)
- 전통음악의 학습 내용을 전 영역의 학습 활동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 - 지역별 민요를 시김새를 넣어서 부르기(가창)

- C, F, G, Bb, D, Eb, A, a, d, e(같은 조표의 우리 음계 포함)의 악곡을 악보보고 부르기(가창, 기악)
- 12 평균율과 정간보의 이해 및 활용(가창, 감상)
- 세마치, 굿거리, 중모리 장단 치기(기악)
- 전통음악의 장식음 이해 및 표현(가창)
- 민속풍의 가락 짓기(창작)
- 시조, 잡가, 단가, 판소리, 범패 등 여러 종류의 성악곡과 연례악, 제례악 등을 감상한

3) 정세문, “전통음악 또는 전통음악적 교재 내용 선정의 발자취”, 교과서 교재곡 개발 방향 및 지도 내용 선정 방안 탐색,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음악교육학회, 1993), p. 1.

다.(감상)

- 가곡형식, 환두형식, 도드리형식의 구조를 이해한다.(감상)
- 전통음악의 학습 내용을 전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지도상의 유의점)

정세문 전 편수관은 제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음악 교과서에는 일반적인 동요와 함께 민요와 전래 동요가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통 음악적 교재곡들도 포함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개된 대표적인 교재곡⁴⁾들은 다음과 같다.

[1차] 오리(초 1), 배꽃(초 3), 제주도(초 4)

[2차] 풀피리(초 4), 제비꽃(초 5), 물레(중 3)

[3차] 별 하나 나 하나(초 1), 닭(초 3), 땀 흘려 풍년일세(초 6), 내 고향(중3)

[4차] 옥수수나무(초 3), 산 길(초 4), 무궁화 새로 피네(초 6), 금강에 살으리랴다(중 1)

[5차] 설 세배(초 4), 달맞이 가세(초 6), 도래 춤(중 1)

정세문 전 편수관은, 이들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전통음악 관련 내용의 변화는 주로 항목의 수와 개념의 구체화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지도할 활동 영역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초기에는 음악교육계 중심 인사들이 ‘초·중등학교에서 전통음악의 가창·기악·창작 지도가 가능한가(어떤 경우에는 당위성에조차)’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표현 활동 내용의 제시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감상에 비중을 크게 두었으며, 그 후에 점차 전통음악 전문 기관과 단체들이 설립되고, 대학의 국악과 개설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지는 한 편, 전통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제 4차 교육과정부터는 전 영역에 걸쳐 전통 음악적 소재를 활용하게 할 만큼 관점이 변화했고, 제 5차와 6차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통악곡과 표현 활동을 증가시켜 왔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세문 전 편수관은 이어서 일반 학교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환기하면서 이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 어떤 관점과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통음악은 우리 정신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며, 예술 문화 속에서의 그 위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미적(歐美的) 사고 양식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

4) 정세문. 앞의 글, p. 6.

리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의 문제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⁵⁾이라고 전제하고, 전통음악의 존중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방향 5)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음악을 옛 수법 그대로 발전시켜 후세에 전달하는 길

둘째, 전통음악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현대적 수법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길

정세문 전 편수관은,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이들 중에 후자를 지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향상과 발전을 기대한다면 남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려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미래 지향적인 민족음악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전통이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 발전하는 가운데 수립되는 것이며, 창조적 개혁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⁶⁾이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통음악의 개혁, 발전을 위해 전통음악의 특질을 새로운 사조에 융합시킴으로써, 즉 선택하고, 절충하고, 혼합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한국 특유의 새로운 음악 어법을 확립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작곡가와 음악교육자들의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정세문 전 편수관은 전통음악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적, 교육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막연하고, 옛 모습 그대로의 전통 악곡을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하거나 악기로 연주하게 할 수 없어서 감상 학습에서만 다루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면서 전통음악 문화의 발전적 수용 및 전개를 위해 위에 언급한 “전통음악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현대적 수법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⁷⁾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선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성과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첫째, 음율이 통일되어 음악의 기본 능력인 독보 및 청음 능력을 쉽게 기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전이가(轉移價)가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고, 음악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민요풍 노래 등의 전통 음악적 교재곡들을 현대적 수법으로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전통음악의 특징을 발견, 감지, 애호하도록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수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전문가들이 부르는 순수한 민요

5) 정세문. 위의 글, p. 6.

6) 정세문. 위의 글, p. 6.

7) 정세문. 앞의 글, p. 6.

8) 정세문. 위의 글, p. 7.

와 시조, 판소리 등의 창법을 서둘러 가르칠 필요가 없다.)

Ⅲ. 주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시각 및 방안

1. 전제되는 교육적 관점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음악교육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주된 경향과 그 추이는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출현과 상이한 이념 및 방법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그들 간의 융합과 조화를 통한 변화와 발전의 연속으로 특징지어진다.

20세기 초,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이념의 발생과 함께 Zoltan Kodaly와 Carl Orff, Emile Jaques-Dalcroze 등의 다중 음악 지도 방법이 구안, 소개되었으며,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John Dewey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음악 활동의 경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급속히 확장되었다. 1960년대 이래 미국 음악교육자들의 노력으로 포괄적 음악교육이 정립, 보급되었고, 1970년대 초부터 Bennett Reimer에 의해 뿌리내리고 자란 심미적 음악교육이 1980년대 후반에 널리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다시 David Elliott에 의해 실천주의 음악교육이 외쳐졌다. 이러한 경향들과 함께 다(多)문화적 음악교육과 종족주의 음악교육 등의 이론과 실천적 방법도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20세기에 음악교육자들이 음악교육의 공(公)교육화를 실현하고, 이론과 방법론을 꾸준히 정립하여 실천했지만, 사회와 학교 속에서의 예술 음악과 음악교육의 위치는 아직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리 음악 지도의 실상은 우리의 이상과 너무 먼 거리에 있다. 21세기 초에,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의 음악교육자들이 오늘과 미래의 음악 교육적 사태들에 대응하기 위해 타당한 교육적 관점을 세우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음악교육은, 모든 사람이 음악의 의미와 아름다움, 그 힘과 가치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제만큼이나 열린 마음과 진지한 학문적 연구, 지혜롭고도 주저 없는 수용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음악교육과 관련되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과 이론, 방법론을 각각 면밀히 고찰하되, 그것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다시 그것을 우리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르게 선별하고 종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선구적인 음악교육자들이 세워준 인간적인 이상과 보편적 이념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을 시작하되, 음악학자들이 탐구하여 안내하는 바 ‘음악 자체의 내적 본질’을 주목하고 그것을 학문 구조적 논리로 파악하여 음악 미적 지각(관조)과 음악 행위(제작·수행)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인간-한국인-나-삶-소리-아름다움-수용-표현-예술’을 하나로 꿰뚫는 교육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하나의 철학이나 이론에 치우친 단일 시각이나 편중된 사고, 하나의 이론에 함몰된 지식으로는 타당한 교육적 관점을 세우기 어려우며, 특히 일단 세워진 관점을 교육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수록 신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2. 교재 악곡 다양화 경향과 대처 방안

이른바 ‘포괄적 음악교육’이 시도되면서부터 세계 음악교육자들은 주로 소수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에서 향유되던 일부 예술 음악 작품들에서 교재곡을 선정하던 종래의 방식으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종류의 음악을 대상으로 삼아 골고루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재곡의 다양화에 힘써 왔다. 바로크·고전·낭만·근대의 서유럽 예술 음악 중심의 선정에서 벗어나 바로크 이전 및 현대 작품으로의 시간적 연장을, 동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로의 공간적 확대를 꾀했고, 민요를 비롯한 모든 종족의 민속 음악과 재즈, 뮤지컬 등의 모든 형태의 음악을 교재곡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해 온 것이다.

그것은 외견상 옳은 주장이고 값진 노력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하려 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옳은 주장과 노력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긴요한 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예술 음악 작품’을 찾고 만들어 주된 교재 악곡을 충실히 갖추는 일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현대의 한국인(일반 보통교육을 받은)’에게 ‘현대 한국인의 정서(詩心으로 응축된)’를 ‘축적되어 온 민족음악 양식’에 담은 ‘가치 지향성 작품’이라고 수긍될 만한 음악 작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교재 악곡의 교육적 효용성은 앞서 언급한 바, ‘음악 미적 지각(관조)과 음악 행위(제작·수행)의 일체화 가능성’에 부응해야 하고, 악곡의 내용은 나 자신과 한국인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 함께 이상적인 지향을 함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음악 양식은 삶과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화’라는 말은 ‘옛 것으로의, 한국인 고유성으로의 회귀(回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

적 연속성에 따른 축적의 과정과 공간적 교류 작용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을 중히 여기는 개념이다. 특히, 교재 악곡의 음악적인 틀은 이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형성된 것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일 때 힘을 지니게 되고, 내 마음과 사회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옛 것은 그 대로일 때 오늘의 것이 될 수 없고, 남의 것은 그 자체로서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옛 것 그대로의 전통음악만이 우리의 것이고 서양음악 그대로를 차용한 한국음악가의 작품도 우리 것이니 그런 음악을 교재곡으로 삼아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어느 종류의 문화 양식이든 옛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오늘날까지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묻어나며 가꾸어지고 축적되는 한 편,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해결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일 경우여야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의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발전된 정통 한국음악 양식 속에 담은 '오늘의 우리의 음악'을 충분히 갖추고 그것을 주된 교재 악곡으로 삼을 때, 비로소 옛날의 우리 음악은 더욱 값지고 소중한 우리의 음악이 되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다른 나라 음악도 귀한 음악이 되며,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의 교재화도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가창 교재곡의 한국화

교사들의 연구물과 학위 논문들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가창 교재 악곡의 문제점은 교과서의 노래들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대체로 '짐부함', '생활 양식과 동떨어짐', '시대 감각에 뒤짐' 등이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정서와 유리되어서 그들이 외면하고 기피하니 수업 성과를 거둘 수 없다.'로 나타난다. 이 점은 음악과 교육의 성패가 걸려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고, 개선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의 삶, 나의 느낌, 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노래 하라고 강요받는다면, 누군들 좋아하고 즐겨 부를까! 더욱이, 만약 가창 교재곡들이 학생들의 정서와 유리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의 정서와 유리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교재곡의 한국화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가창 교재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다음 몇 가지로 집중된다. 첫째, 가사의 문제이다. 가사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음악교육자가 시인의 눈과 학생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적절한 노랫말을 선별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의 가사가 학생 자신들의 삶과 꿈을, 동시대와 이 사회 특유의 정서를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시인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가사가 진부해서 음악 지도의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버리고, 적절하고 훌륭한 가사의 노래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

를 가져야 한다.

현행 교과서에도 진부하거나 공허한 가사의 노래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공감되는 훌륭한 가사의 노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훌륭한 가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도 음악 지도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교사 자신의 문제이다. 시인 유경환은 '노랫말은 사전적 의미의 단순한 총화(總和) 이상의 뜻을 지니며, 그것은 시대성 또는 사회성일 수도 있고, 문학성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겉으로는 노래의 가사가 진부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음악 교사가 마치 문학 교사처럼 시인의 마음이 되어, 노랫말의 행간에 숨어있는 시대적, 사회적 의의나 문학적 의미를 찾아내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로 전환되어 있는지를 느끼면서 노래 부르도록 이끈다면, 얼마든지 가사의 진수와 가락의 의미를 드러내어 공감하면서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미있는', '신나는', '그냥 좋은' 등에 그치는 가사이거나, 교훈적이기만 해서 오히려 마음을 끌지 못하는 "귀한 한 말씀"의 가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가슴에 꿈과 그리움, 정(情)과 사랑, 선함과 진실함, 아름다움과 정의로움, 용기와 야망, 희생과 봉사의 마음, 군제와 조화에 대한 안목, 민족 정신과 인류애 등을 심고 키워주는 노랫말을 가진 노래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의식과 생활 양식이 바뀌어도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랫말의 악곡을 찾고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인과 작곡가와 음악교육자들의 공통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생토록 가슴에 담아 두고 노래 부를 만한 가사들, 문학성의 면에서 아름다운 노랫말, 생활 정서와 시대 정서를 담은 노랫말, 감동과 재미와 교훈을 함께 담은 노랫말, 새로운 형식이나 실험적인 형태의 노랫말들을 꾸준히 만들어 주려는 시인(詩人)들의 노력과 그 속을 읽어내고 그것을 진지하게 음악 되게(음향화) 하려는 작곡가와 음악교육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가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가락의 문제이다. 사실, 가락에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가락에서도 가사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의 정서에 걸맞은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언어의 특질과 어휘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가락인가' 또는 '정통의 우리 가락에 바탕을 둔 오늘의 가락인가'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교재곡의 가락이 학생들의 정서에 부합되는가 라는 문제는 시대나 사회 경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 작곡상의 표현 기교만으로도 능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어 특질과 가락의 합치 여부나 우리 정통성악적 특징의 반영 여부는 근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노래는 본질적으로 시심과 언어에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볼 때, 시적(詩的) 상념(想念)과 언어의 특질, 어휘의 의미는 가락의 성격과 윤곽을 결정하는 데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재곡들 중에는 그에 배치되는 노래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는 교재곡이 소리

를 다루는 보편성의 원리와 특수성(또는 융통성)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음악 미적 지각과 반응의 경험을 돕는 예술 작품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는, 노랫말의 의미를 가락 속에(그것이 어떤 음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든 상관없이 라도) 길이로, 높이로, 크기로, 억양으로, 음색으로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는 악곡, 어휘와 문장의 의미가 가락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래를 찾아 가르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말이 살고, 우리 노래가 살고, 우리 정서가 살게 된다. 노랫말 어휘의 각 음절이 지니는 특유의 소리 상태가 무시된 채 서양 가락 진행의 세련됨만을 꾀한 경우, 기악 곡으로 작곡된 가락에 무리하게 가사를 붙이거나 화음선 또는 서양적 프레이즈 구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노랫말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등은 우리말 우리 노래를 병들게 하고 우리 노래의 가치를 무너뜨리며 학교 음악 지도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말, 우리 노래, 우리 정서가 이 땅에 오래도록, 그리고 더 잘 가꾸어지면서 우리의 음악 삶 속에 살아 있게 하는 더 적극적인 길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될 만한 가창 교재곡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가르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최상의 가창 교재곡을 만드는 길은 오늘날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악적 특징을 의미 있게 결합시킨 노래를 찾아내고 만드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통성악적 특징을 밝히고 기존의 노래들 속에서 그러한 전형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특징은 선비의 노래인 전통 가곡과 시조, 가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노래들 속의 소리 다름의 원리와 아름다움의 요건이 오늘의 삶 속에서 생성되는 선비(시인)들의 시심(언어)과 만나 새로운 가락으로 형성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술 가곡, 최상의 교재 악곡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된 가창 교재곡과 더불어, 그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창 교재곡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수 있다. 전래동요와 민요, 단가, 판소리 등도 우리의 귀중한 성악곡 형태이므로 그러한 노래들의 성악적 특징과 현대 노랫말(같은 성격의)을 결합하여 각각 특유한 형태를 지닌 다양한 종류의 노래로 이어 만들고 그들 중에서 유용한 노래들을 제 2, 제 3의 교재곡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우리 음악, 다양한 우리 교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성천 교수가 제시한 전통음악에 바탕을 둔 노래 작곡의 방향은 포괄적이고 명료하며, 가능한 적용 방안⁹⁾까지 보여준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음 음계는 한국의 기본 음계이지만, 3음, 4음, 6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고, 5음 음계를 사용하더라도 음높이와 진행이 국악의 가락이 되어야 한다. 노랫말에 따라 곡을 지으면 음계에 구애받지도 않을 것이다.

9) 이성천, “국악동요의 방향에 관한 소고”, 국악동요세미나 자료집, (국립국악원, 1993).

둘째, 노랫말의 길이, 높이, 뉘앙스를 모두 철저하게 가락에 전이시켜야 한다.

셋째, 음악을 형식 속에 가두지 말고, 음악의 자율적 논리에 맡겨야 한다.

넷째,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고, 창부타령조와 수심가조, 육자백이조, 메나리조 등의 다양한 선율적 특징을 활용해야 한다.

가창 교재곡 선정의 주된 대상은 오늘의 우리의 예술 가곡이지만, 그것을 중심에 두면서 그와 함께 가르쳐야 할 노래도 정성을 들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 첫째 범주가 전래동요와 민요, 단가, 판소리 등이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의의를 지니면서 생성, 보전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각 노래 분야 전문가들의 보존 노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노래들을 교재화해야 한다. ‘재미있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신나게 부른다.’는 이유 하나로 민요나 전래동요를 몇 십 퍼센트 교재곡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판소리는 어려워니 포함시키지 말자는 등의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신나게 노래 부르는 까닭은 그 노래 자체의 음악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민요, 어느 전래동요의 어떤 면이, 왜 오늘의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져야 하는지를 살피고, 어느 판소리, 어느 대목의 어떤 음악적 현상과 의미가 몇 학년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하는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옛 음악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한국화의 길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누가 부르던 어느 노래를, 그 속의 무엇을, 왜, 몇 학년 학생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그 연구된 바를 실제화 하는 이 일이 바로 교재곡의 한국화인 것이다.

교재의 선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둘째 범주는 다른 나라들의 노래들이다. 교재곡의 한국화는 외국 노래의 배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교육의 목적 성취에 가장 유용하고 합당한 악곡을 정선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종래의 몇몇 유명 작곡가의, 명곡 중심의 선정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과 종류를 망라하되 가르치고자 하는 음악의 보편적 또는 특정 성격 또는 현상, 측면을 가르치는 데에 가장 알맞은 악곡을 정선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노래의 교재화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번역 가사의 수준이다. 졸속 번역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채 많은 번역 가사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어순(語順)이 거의 반대인 외국어를 직역해 놓아서 가락의 음과 우리말 음절의 소리 상태가 서로 심하게 빗나가기 일수이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번역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학년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면 번역은 따로 읽게 하고 외국어 가사 그대로 부르게 하는 것이 더 음악적일 것이다.

IV. 맺는 말

음악교육은 이제 '작곡가가 만든 악곡으로 연주가가 하는 것처럼 익혀 행위 하게 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작곡가와 연주자로부터 음악 하는 방식을 배우되, 자신의 의도와 자기 방식으로 소리를 다루도록 이끌어주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악교육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느낌과 상상력을 일깨워 시적 상념을 가지게 하고, 우리말의 특질을 탐구하게 해야 하며, 소리의 속성(길이, 높이, 크기, 음색 등)을 탐색하면서 음악 본유의 논리(균제와 조화, 의미와 아름다움)에 따라 그것을 다루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때, 교사는 음악보다 인간의 본성을, 정확한 소리나 현란한 기교보다 인간의 삶의 모습과 소리의 속성을 먼저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학생은 음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과 시심이라는 점에 눈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는 우리말과 소리가, 그로부터 형성되는 의미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나의 느낌과 나의 삶이 곧 이웃과 사회, 인류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음악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음악과 인간의 관계와 음악교육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바르게 세워질 때, '음악교육의 한국화', 또는 '교재 악곡의 한국화'라는 명제는 널리 공유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음악교육의 한국화'가 음악 지도의 내용을 전통음악으로 대체하자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중심이 되는 '오늘의 우리 음악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주어진 음악 수업 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전통음악도 물론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더라도 많은 전통악곡을,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는 등 마는 등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악곡이라도, 시대별로, 종류별로 우리 정통악곡을 정선하여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한국화' 노력으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음악 경험을 '나와 나의 음악'으로부터 '세계와 세계의 음악'으로 확장함으로써 음악 삶의 패턴을 자기 중심, 민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우리의 음악교육이 '가치 지향, 민족 지향, 미래 지향의 음악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악원. (2000). 향토 민요. 서울 : 민속원.
- 나운영. (1993). “교재곡 개발의 새로운 방향”, 교과서 교재곡 개발 방향 및 지도 내용 선정 방안 탐색.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대회, 서울 : 한국음악교육학회.
- 이성천. (1993). “국악동요의 방향에 관한 소고”, 국악동요세미나 자료집. 국립국악원.
- 정세문. (1993). “전통음악 또는 전통음악적 교재 내용 선정의 발자취”, 교과서 교재곡 개발 방향 및 지도 내용 선정 방안 탐색. 한국음악교육학회 학술대회, 서울 : 한국음악교육학회.
- 함수곤. (2000).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ABSTRACT

A Direction for Reforming in Korean Style of Song Materials for Teaching

Lee, Hong-soo

Although our youngsters learn music in schools, both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Western music, as one of the subject matters in schools for at least ten years, almost all educated people don't enjoy the art music in their lives. And they don't show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own musical culture and others'. It is the main reason that our students don't have their musical materials based on sounds in their language characteristic. Now, we have to change the goals to achieve in music teaching and should include as the essential activities in music classes, in sense of that music should be recognized first as students own sounds strongly reflected their feelings, thoughts, intents, and their lives in their unique language characteristic.

Music education should not be merely reproducing music created by other people, in according to teachers interpretation and suggestions. It should be musicing that the students create music in selecting and dealing with sounds according to their own feelings and intents, learning the way of musicing from composers and performers. In those learning processes, the students will have feelings and imagination and will inquire the nature and quality of sounds and language characteristics.

Music is humanly generated sounds that are good to listen to and that are so for themselves and not merely for the message they convey. Our students can generate sounds to be good to listen to also. Therefore, music educators have to provide continuall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o it and should find the way to lead students to easily and clearly acquire the musical concepts and principles through active music making in relation to the sounds system of their culture in which it is generally used in daily lives.

For doing this, we have to make and provide students with musical materials based on sounds in their language characteristic.